

PORTFOLIO

“본질에 집중하여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디자이너”



YUSOYEON
유소연

010-2574-1192

syu3498@gmai.com

so._.yeon_9_8

EDUCATION

- 2021. 03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입학
- 2024. 02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졸업
- 2024. 03 백석예술대학교 입학
- 2026. 02 백석예술대학교 공간디자인 전공 졸업

PROGRAM SKILLS



AWARDS

- | | |
|---------------------|--------------|
| -2022 국가 상징 디자인 공모전 |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상 |
| 디자인 전람회 | 특선 |
| -2023 디자인 전람회 | 특선 |
| -2025 서초 가설울타리 공모전 | 최우수상 |
| 한국색채대상 | 블루상 |
| 한국 공간디자인 전국 공모전 | 장려상 |
| 공간디자인 졸업전시회 | 대상 |

CERTIFICATE

- 2021 정보기술자격(itq)시험A급
- 2021 GTQ 2급
- 2022 CAD 실무능력평가
- 2023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Activities

- 2024. 10 공간디자인 전공 1학년 과대
- 2025. 01 공간디자인 전공 2학년 과대
- 2025. 03 공간디자인 졸업 전시 위원회 총괄

CONTENTS

PRODUCT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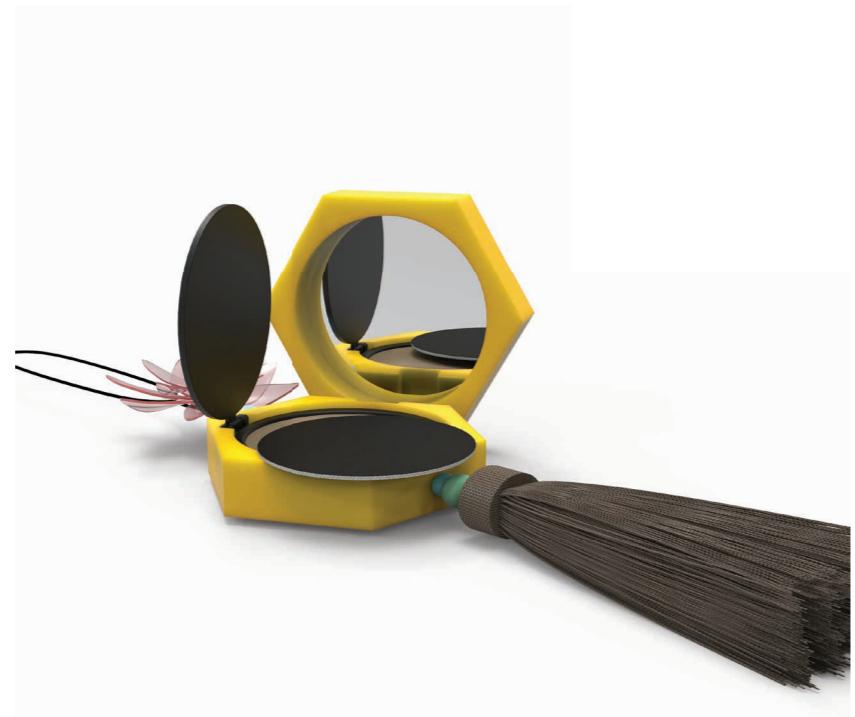
- 01 Norigae Compact
 - 02 Najeon Play
-

SPACE DESIGN

- 03 Seripul Raincoat Girl
 - 04 Re-Bloom
 - 05 SEASON STORE
 - 06 PAUSE ON THE WATER
 - 07 Matrix & Gentle Monster Pop-up
 - 08 COLORING HOTEL DRAWINGS
-

GRAPHIC DESIGN

- 09 LOGO / NAME CARD
 - 10 JAPANESE ICONS
-



TITLE: Norigae Co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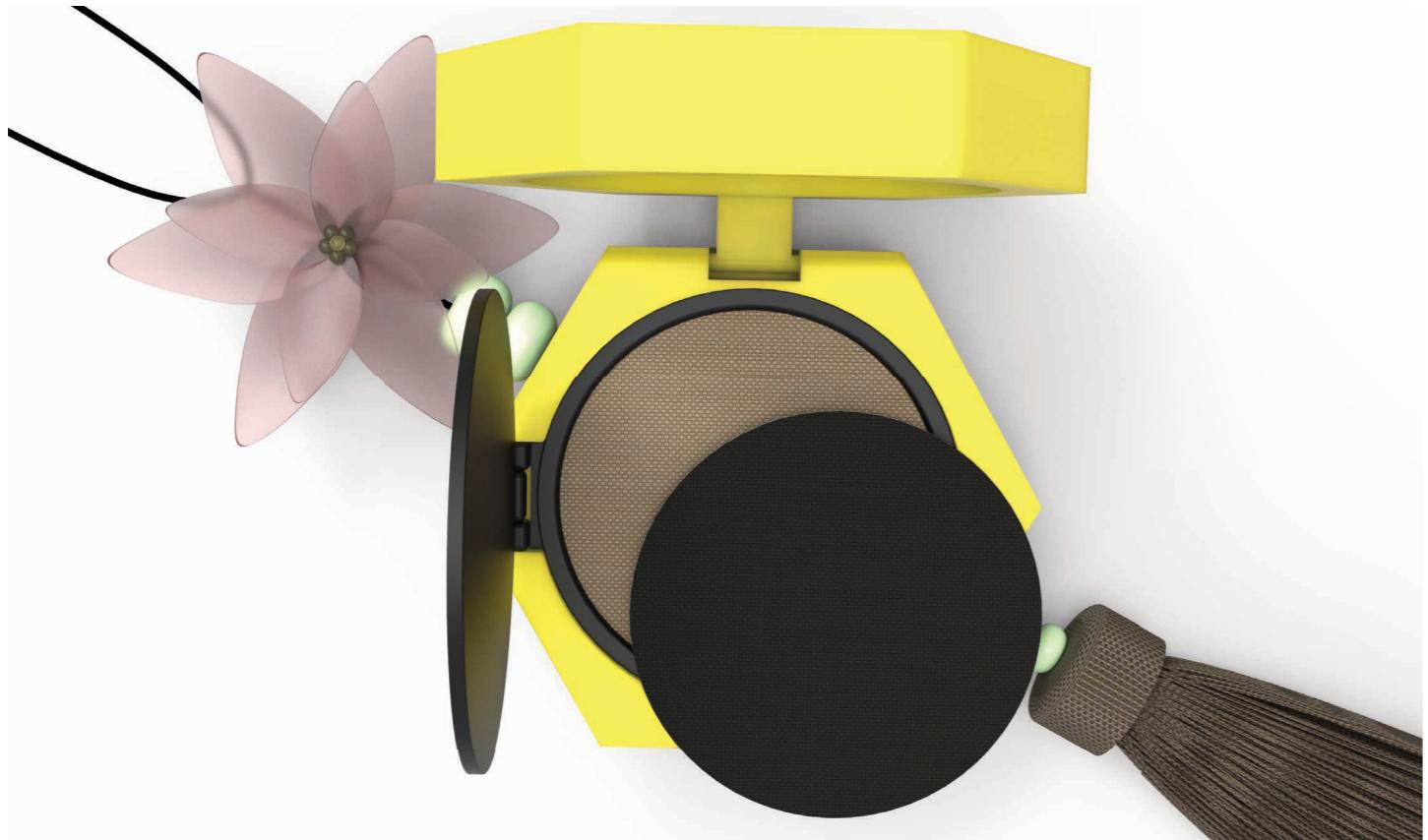
YEAR: 2022

AWARDS: -국가상징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디자인 전람회: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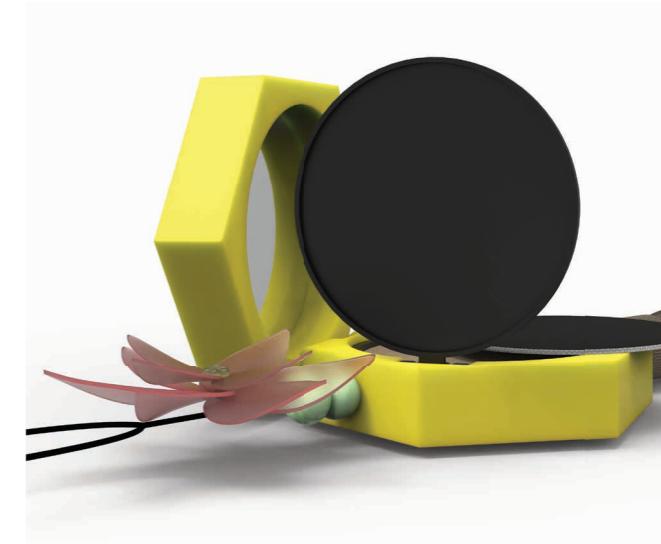
K-문화가 대세인 요즘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노리개 형태의 쿠션 팩트를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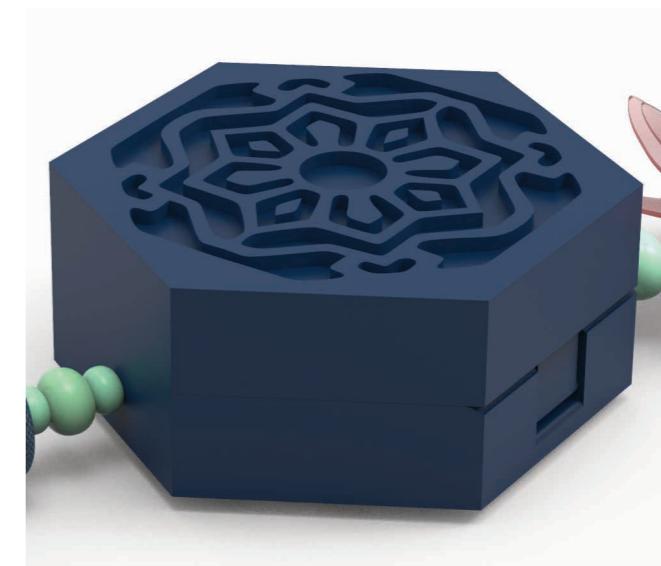
Tradition × Modernity / Craft × Digital / Emotion × Function



한국 전통 액세서리 ‘노리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메틱 컴팩트입니다. 대표 문양은 사방에서 복이 들어오는 길상 패턴으로, 여행자에게 기념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전달하는 디자인입니다. 패션 액세서리 + 뷰티 제품이라는 하이브리드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전통 노리개의 미적 요소를 뷰티 코스메틱의 기능성과 결합하여 구현



노리개 팩트의 여닫음을 책임지는 짜맞춤 디테일



TITLE: Najeon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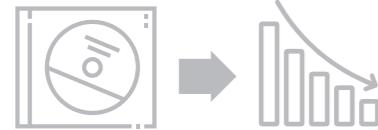
YEAR: 2025

K-POP의 음악과 감성을 한국 전통 공예인 나전칠기로 담아낸, 빛나는 기억의
오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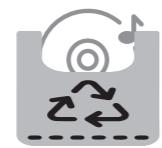


Tradition × Modernity / Craft × Digital / Emotion × Function

BACKGROUND



디지털 시대에 CD플레이어의 감소



음악 소비의 일회성



기념품의 상투성과 소장 가치 부족

최근 K-POP, K-DRAMA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한국을 반문한 해외 팬들은 음악, 드라마를 넘어 문화와 감성을 직접 경험하고자 한다. 하지만 CD 앨범은 구매 후 재생할 플레이어가 없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팬덤 굿즈 시장의 지속성을 전통미로 해결한 문화 오브제



학
고귀함과 장수의 상징, 오랜 시간 변치 않는 가치를 담습니다.

나무
생명력과 성장의 상징, 뿌리내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힘을 표현합니다.

달
완성과 소망의 상징. 은은하게 빛나는 꿈과 희망을 담아냅니다.

구름
자유로움과 변화의 상징. 경계를 넘어 흐르는 확장성을 나타냅니다.

Why Nageonchilgi



전통과 현대의 연결
고급스러운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소중함의 상징
과거 왕실에서 귀중품을 담던 상징성



빛과 기억의 표현
자개 특유의 영롱함이 감성을 시각화



글로벌 소구력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자연스럽게 전달



TOP VIEW



RIGHT VIEW



TITLE: Seripul Raincoat Girl

YEAR: 2025

AWARDS: -서초 가설 울타리: 최우수상

-한국색채대상: 블루상

WORK: TEAM(전체 기획 및 디렉)

Light × Emotion / Visual × Interactive / Object × Narrative

서초의 도시 현실(공사장)과 서리풀의 자연 감성을 '빛'으로 통합합니다. 딱딱하고 효율적인 면모에 따뜻함과 안정감을 부여하여, 감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 아이덴티티를 확립합니다.



양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 가설울타리

서리풀의 유래



조선시대 지명 '서리'와 '풀'에서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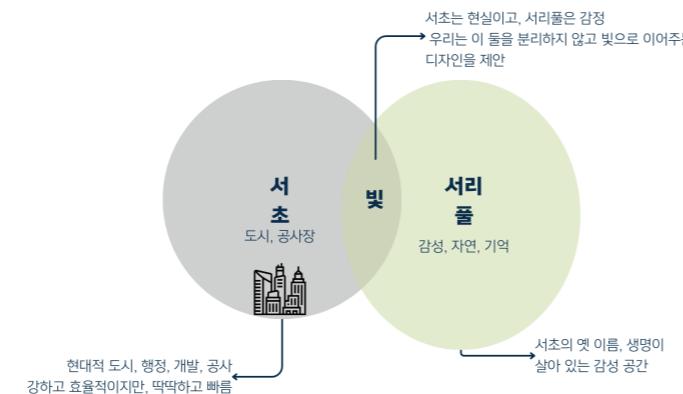


자연과 조화된 지형 > 초지와 안개가 많은 지역 →



'복이 깃든 땅', '벼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로도 해석

가설 울타리와 서리풀의 조화



DESIGN PROCESS



비가 오기 전, 서리풀 숲에 자욱하게 깔린 안개를 표현하고, 노란 우비 소녀 캐릭터를 배치하여 신비롭고 동화적인 서막을 연출.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순수하고 귀여운 희망의 상징을 담아냄.



서리풀 숲의 풀(Greenery) 재질감을 텍스처 작업을 통해 극도로 강조. 빽빽하고 깊이 있는 질감을 살려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건축물에 부여하고 주간 시인성을 높임.

DESIGN KEYWORD



안개
(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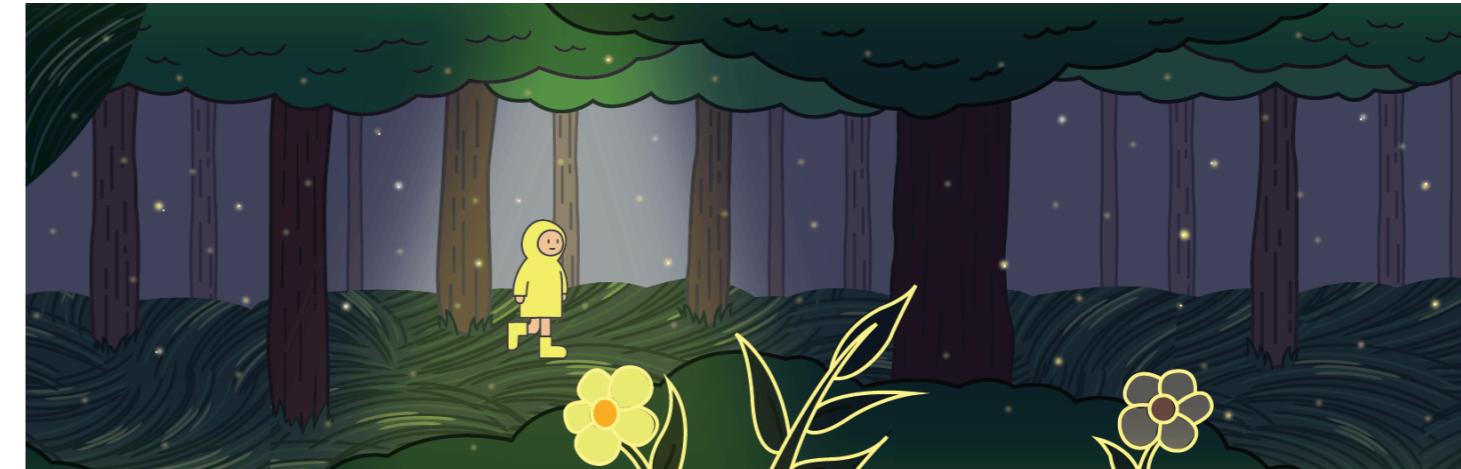
풀 (Grass)

'풀'은 자연성과 생명력의 상징
서초의 '초'와도 연결되는 공식 명칭 속 상
서로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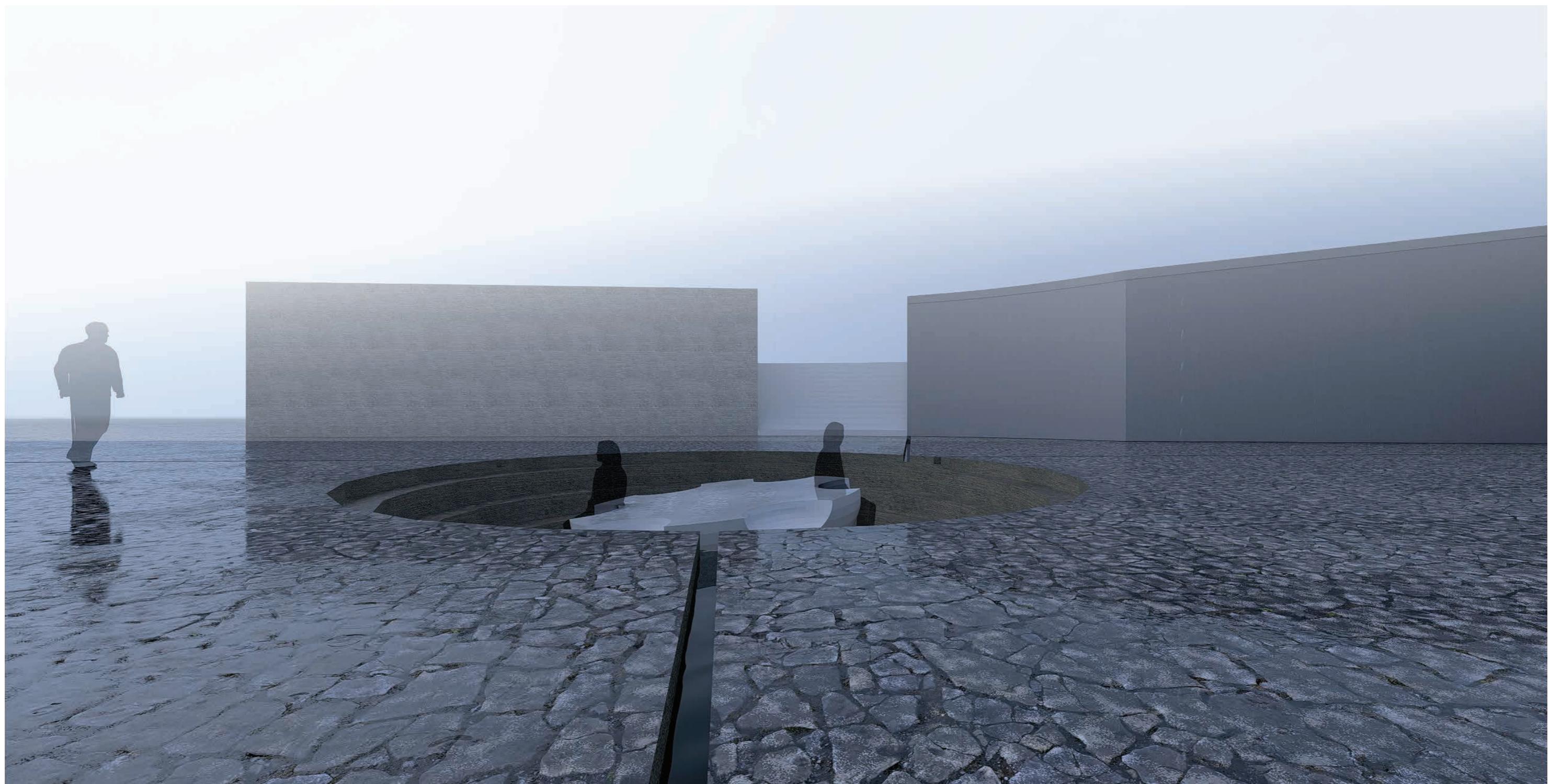


반딧불이
(Firefly)

반딧불이는 작지만
따뜻한 감성의 빛
서리풀의 감정을 시
각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모티프



소녀의 주변을 맴도는 반딧불이의 움직임을 컨셉으로,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빛 효과를 연출. '빛'을 통해 서리풀 숲에서 길을 안내하고 위로를 주는 듯한 치유의 감성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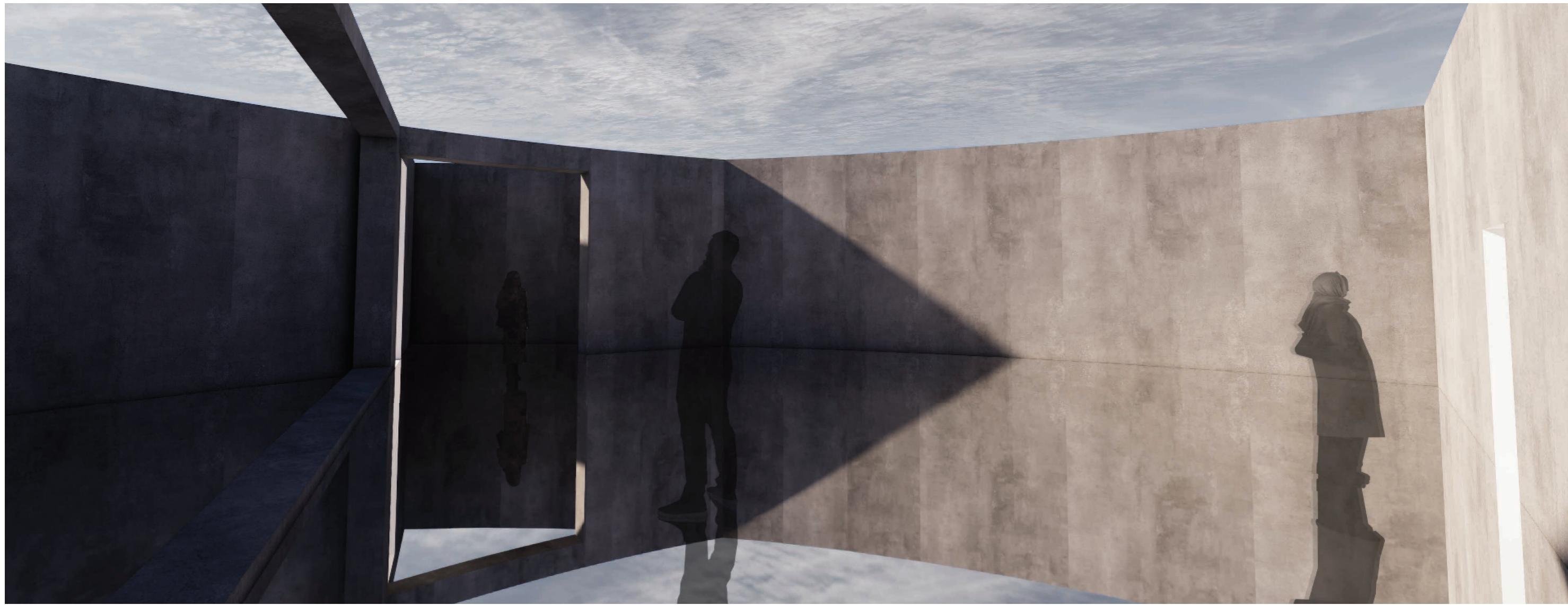
TITLE: Re-Bloom

YEAR: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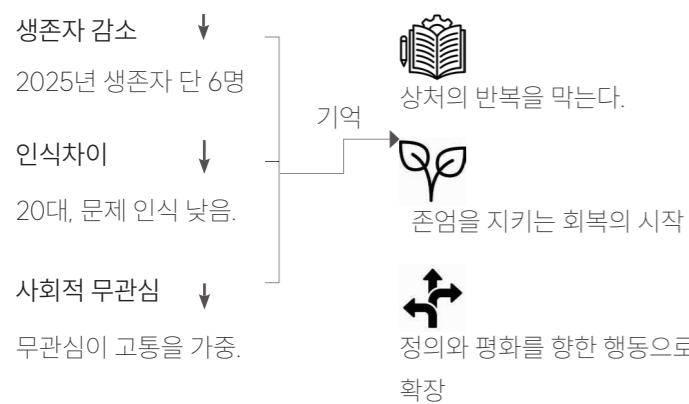
AWARDS: -한국 공간디자인 전국 공모전: 장려상

"기억의 공백" 위기를 극복하고, 방문객을 단순 관람객이 아닌 "행동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전환시키는 치유와 연대의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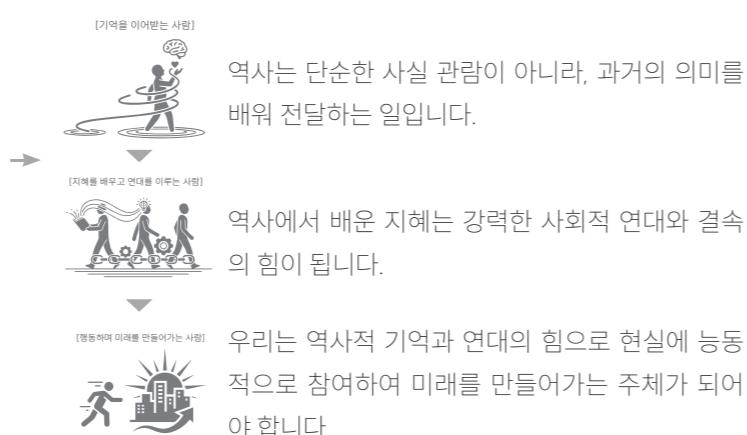
Memory × Space / Pain × Healing / Emotion × Imm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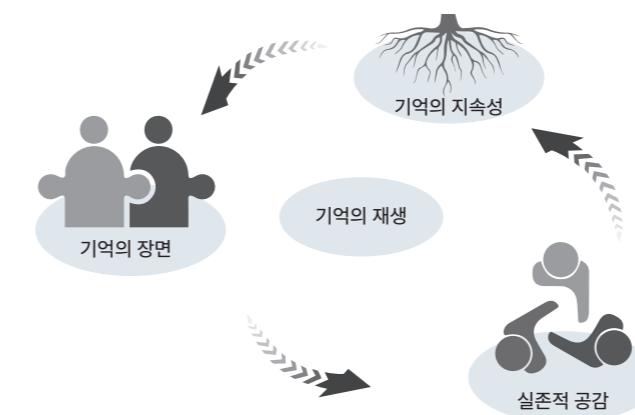
BACKGROUND



TARGET



CONCEPT PROCESS



기억의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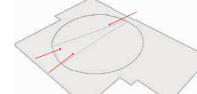
“과거는 기억으로 나타나고, 기억은 흔적이 되어 실존이 된다.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억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감정 기반 공간 디자인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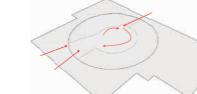
MASS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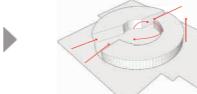
원형의 시작:
‘마음’, ‘회복’, ‘연결’의 상징인 원형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기본 공간 형태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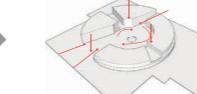
깊게 갈라진 틈
단절된 역사와 상처를 상징하며, ‘원형’과의 대비로 감정의 균열을 표현



중심의 중정
곧은 마음, 생명력, 회복의 상징. 피해자들의 존재감이 자라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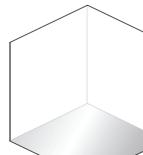


벽체 구성
내부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단순히 수직으로 벽체를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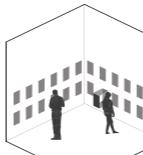


공간 분할
각 공간의 감정과 성격에 맞추어 형태적으로 구성

SPAC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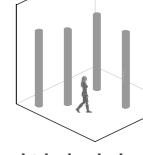
시간의 중첩
거울과 빛: 충격적인 절망의 시작점.



남겨진 흔적
유품 서랍, 시간 교차의 경계.



공감의 벽
파문, 기억 공간에 행위를 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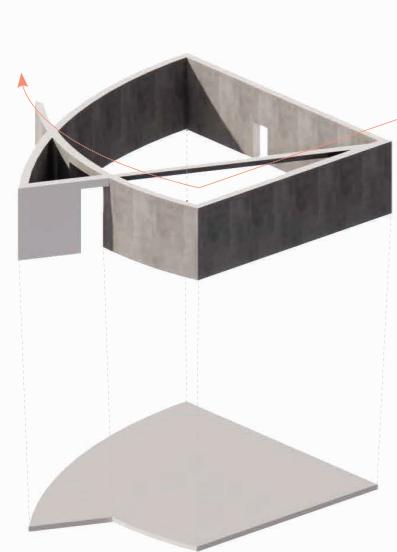


기억의 씨앗
메시지: 희망의 씨 앗 심기.



치유의 정원
6인의 의자, 기억을 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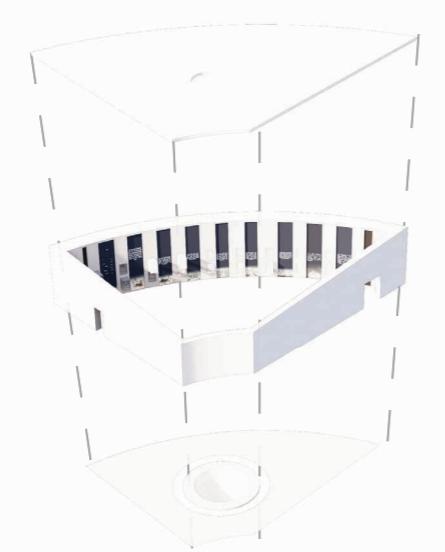




MATERIAL

Dark Grey Concrete Texture

Reflective Material



MATERIAL

Matte White Finish

Speckled White



MATERIAL

Media Art Wall Explanation

Irregular Flagstone



MATERIAL

Off-White Microcement

Cement/Cementiti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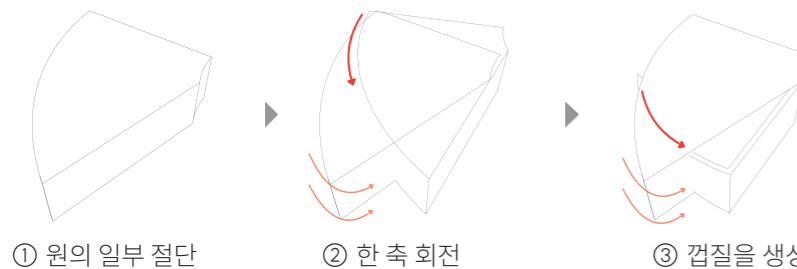
MATERIAL

Off-White Paint Finish

Matte Light Gray Marble



시간의 중첩



원의 일부를 잘라 단절된 시간/기억을 표현하고, 내부를 회전시켜 비틀린 궤적 위에 갑질을 생성하여 과거/현재 경계 교차.

남겨진 흔적



전체 공간은 원형 매스에서 시작, 비정형으로 변형. 상부 원형 천장의 빛이 바닥 조형물 위를 이동하는 흐름을 유도.

시간의 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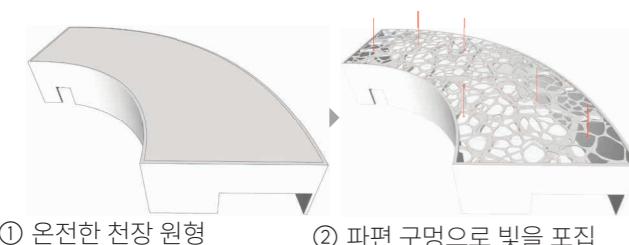
점점 낮아지는 천장과 경사진 바닥 속에서, 관람자는 자세를 낮추며 감정의 무게에 이끌려 과거로 내려가는 심리적 체험.

공감의 벽



반원형 벽체의 3단 높이 구멍은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공감은 어렵지만 다른을 이해하는 잠깐의 나란함 유도.

기억의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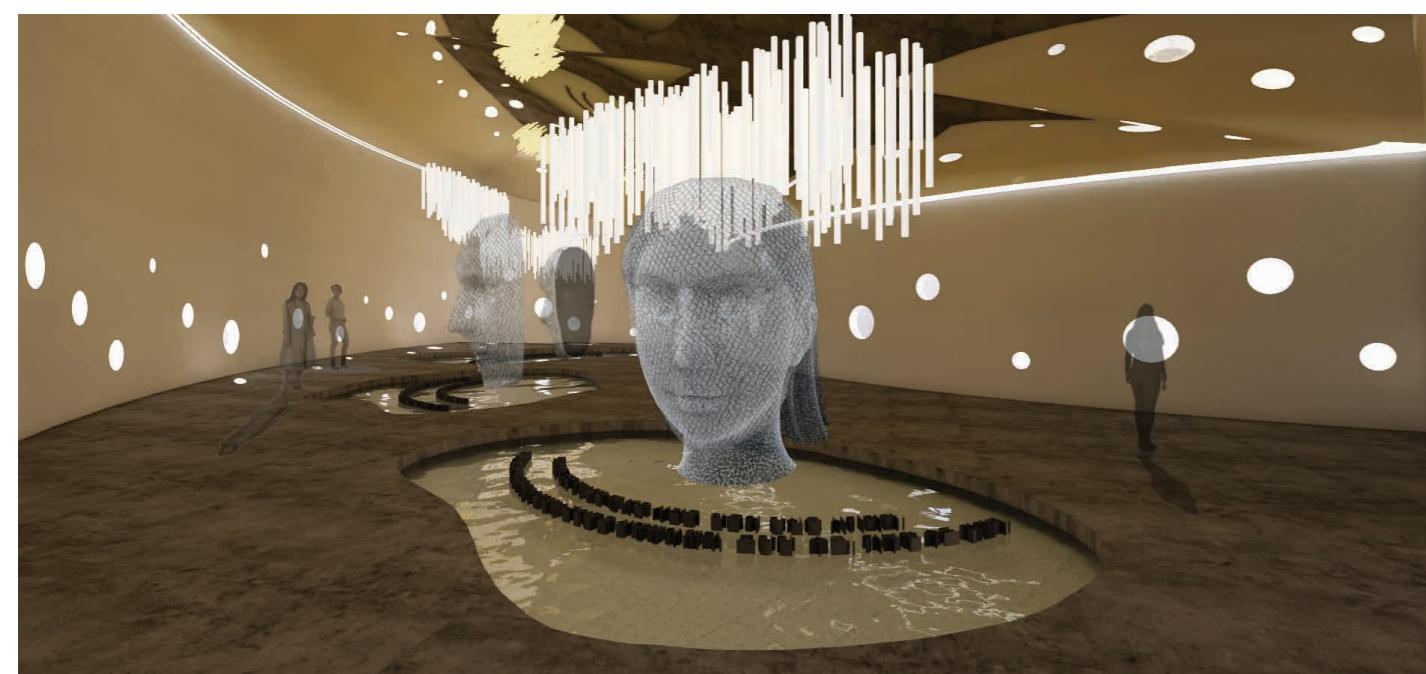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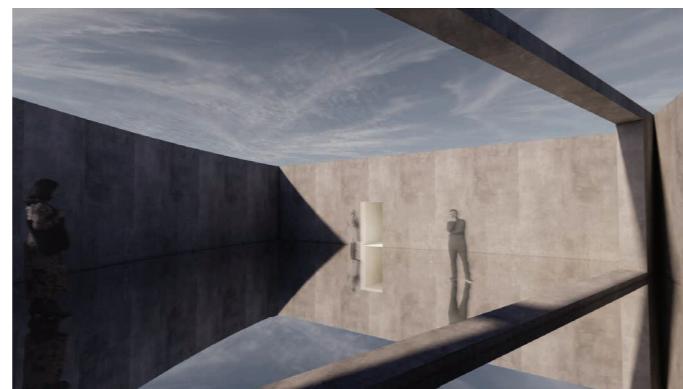
내부와 외부를 부드럽게 연결하며, 희망과 다짐의 메시지가 모여 커다란 숲이 되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현상화.

치유의 정원



중심 없는 반구를 의자 다리로 불완정 기반 생성. 2025년 5월 기준 6개의 구로 생존자를 현상화, 온전치 않은 일상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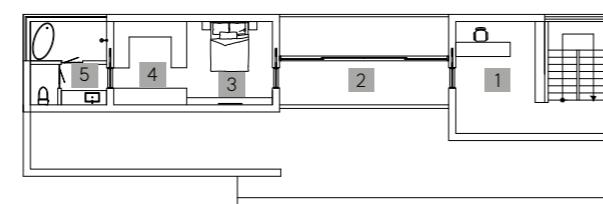


TITLE: SEASON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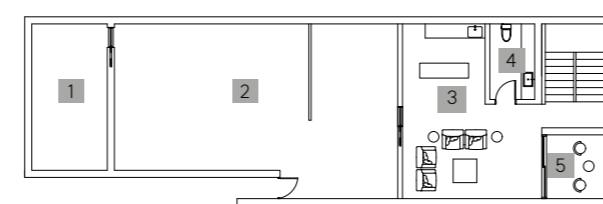
YEAR: 2024

사진작가를 클라이언트로 설정한 '시즌스토어'는 풍경사진 작업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다. 분기별 전시를 진행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집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모호하게 디자인했다. 후면 테라스에서는 풍경을 감상하며 티 타임을 즐길 수 있고, 욕실과 계단의 창을 통해 목욕과 이동 과정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 디자인은 공간의 활용성과 자연과의 연결에 중점을 두어, 사진작가의 전문성을 살린 풍경 감상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안한다.

MATERIAL



- 2F
- 1 Home Office
 - 2 Corridor
 - 3 Bedroom
 - 4 Dressing Room
 - 5 Bathroom



- 1F
- 1 Storage
 - 2 Exhibition Space
 - 3 Lounge
 - 4 Toilet
 - 5 Terrace





TITLE: PAUSE ON THE WATER

YEAR: 2024

Memory × Space / Pain × Healing / Emotion × Immersion

상업활동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휴식을 위한 공간은 부족. 쇼핑, 카페, 공원 등에서 잠시 쉼을 취할 수 있지만, 상업적 분위기나 사람들로 인해 진정한 휴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쉼터가 필요하다.

SIT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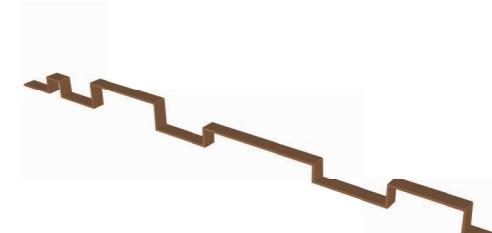


- 석촌호수는 산책과 여가, 상업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용 밀도가 높은 보행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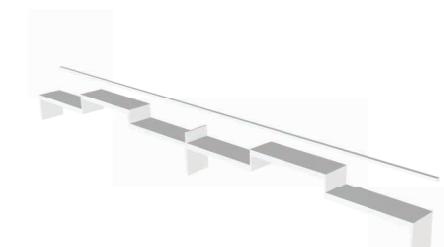
- 긴 보행 동선에 비해 휴식을 위한 벤치는 점 단위로 배치되어 있어, 이동 중 잠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 이러한 환경을 관찰한 결과로, 보행 호흡을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좌석 구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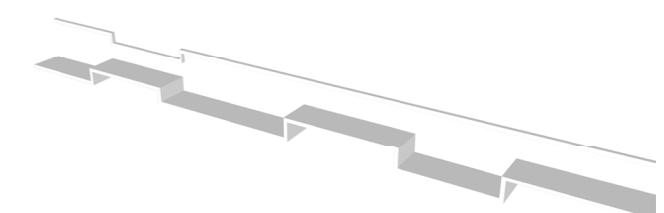
DESIGN DEVELOPMENT



STEP1. 호수의 물결처럼 울렁이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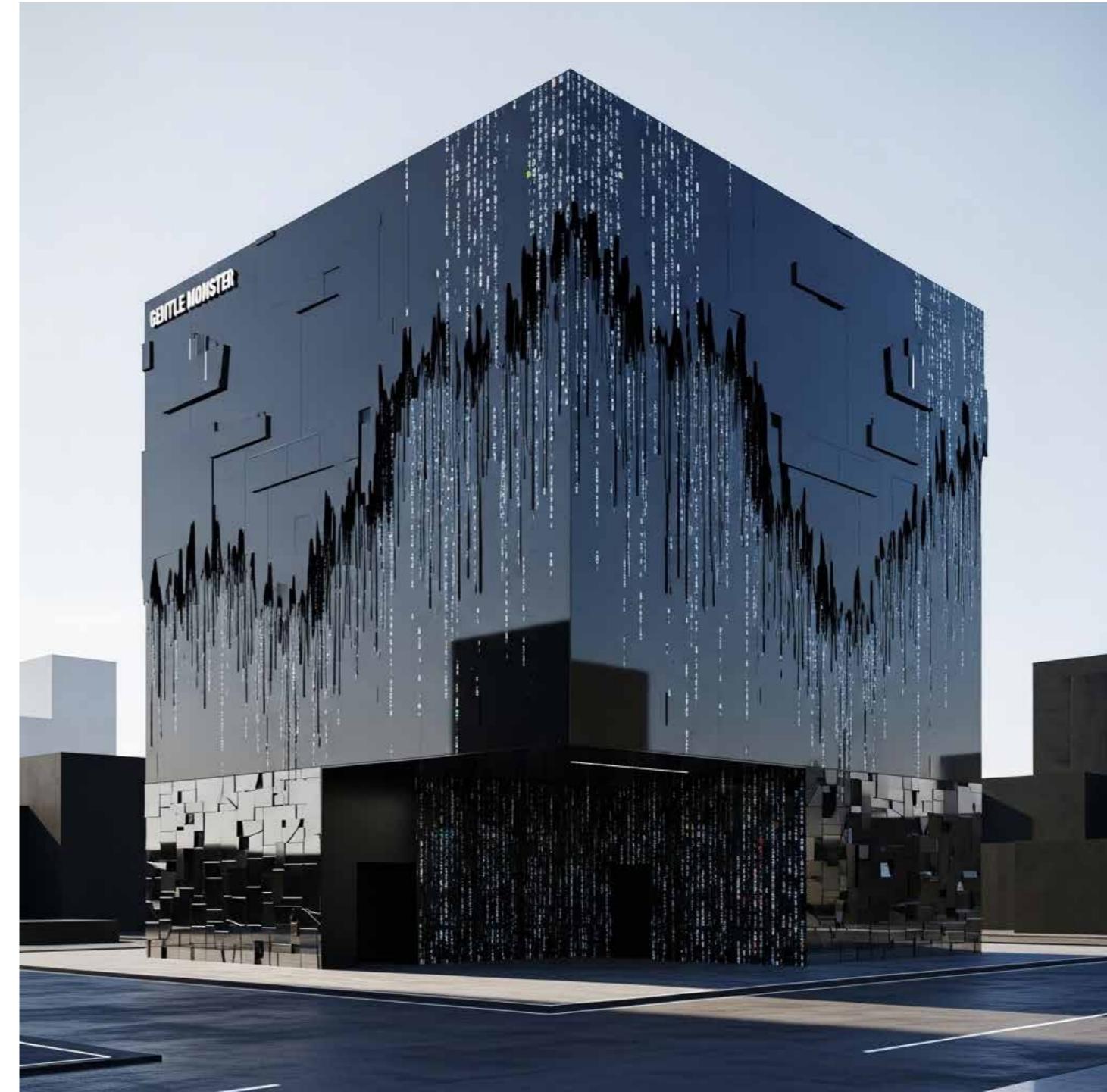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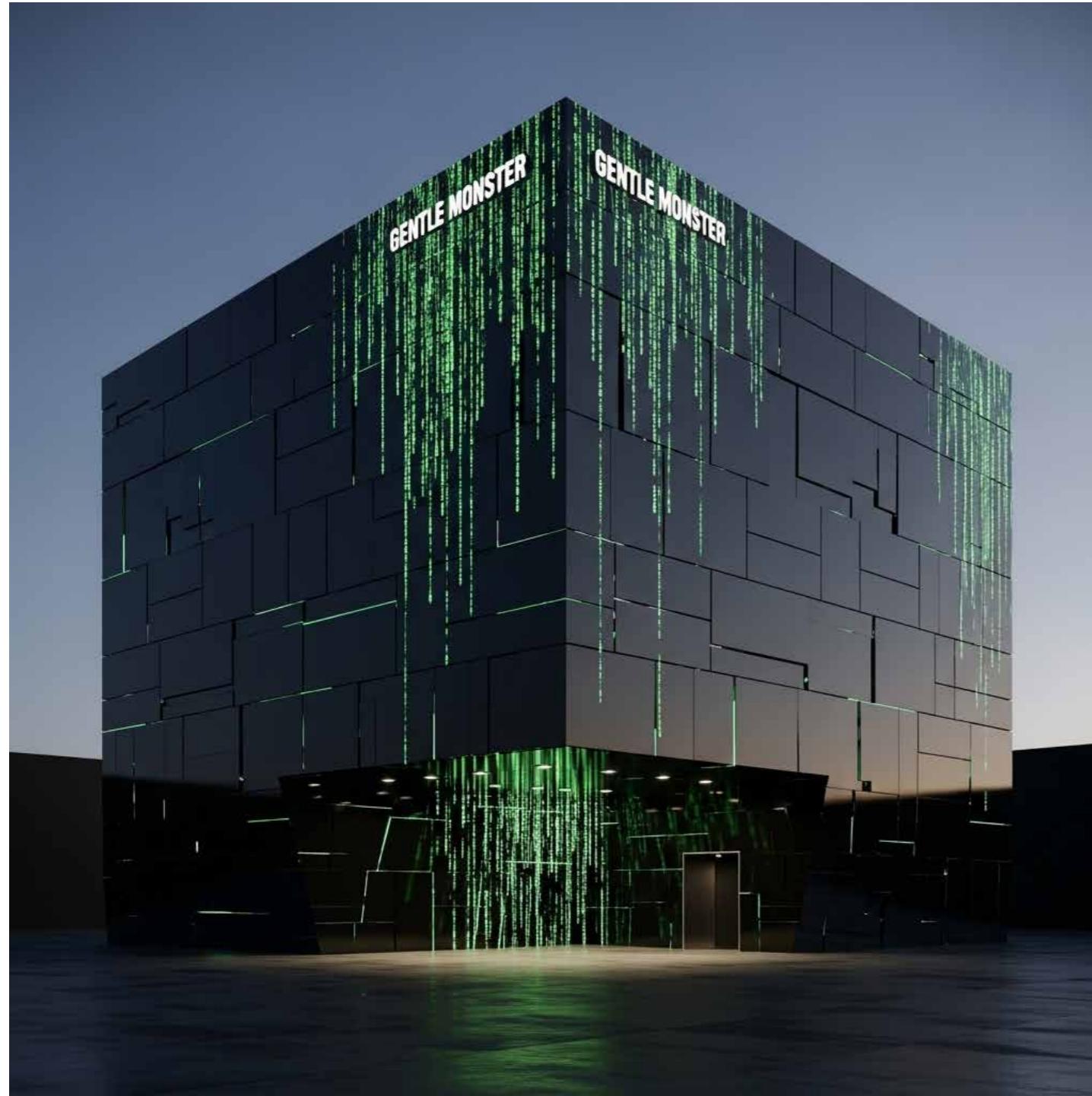


STEP2.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디자인



STEP3. 호수의 물결처럼 난간도 의자와 같이 표현





TITLE: Matrix & Gentle Monster Pop-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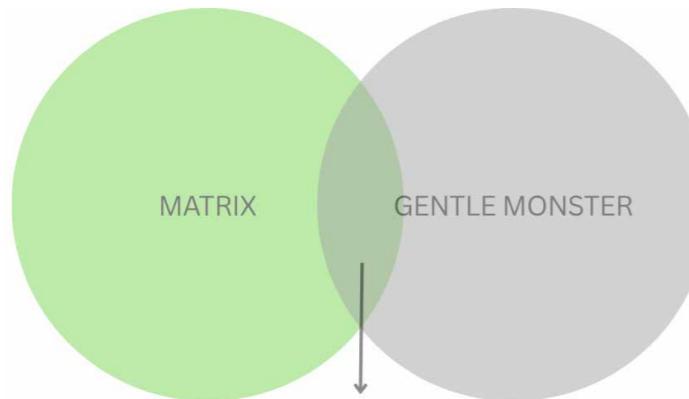
YEAR: 2025

AI: Gemini, Chat gpt, Prom Ai

Digital × Physical / AI × Human / Control × Freedom

영화 『매트릭스』의 핵심 테마인 '선택과 각성'을 젠틀몬스터의 차갑고 실험적인 미학으로 재해석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가상 현실과 각성
네오의 자기 발견
그린톤, 코드, 네온
체제에 대한 저항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자기 인식과 선택
미래적이고 실험적 감성
비순응과 혁신 강렬한 시
각적 언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개성·무표정·감정 억제
금속·무채색·실험 조형
전통에 대한 실험

팝업스토어 컨셉



젠틀몬스터의 감각적 리얼리티와 매트릭스의 초현실적 세계관이 충돌하는 체험형 각성 공간 “당신의 정체성과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몰입적 공간 설계 및 감각의 뒤틀림



구도: 프레임처럼 공간을 구성해 관객의 시선을 유도합니다.

조도: 명암과 색조를 이용해 감정과 분위기를 조절합니다.

동선: 장면 전환처럼 공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여 감정의 흐름
유도

상징의 시각화



선택의 경험: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을 직접 느끼게 하여 주체성 부여.

몰입 유도: 빨간 약처럼 브랜드 철학/메시지를 깊이 있게 경험.

상징 재해석: 단순 구매를 ‘브랜드 세계관 참여 선택’으로 전환하여 몰입
도 향상.

젠틀몬스터 무드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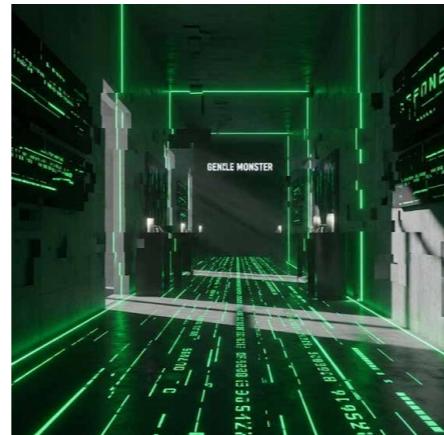


차가움: 미니멀하고 정제된 연출 (금속/유리 등 소재 사용).

초현실: 비현실적 조형물 및 왜곡된 시공간 구성.

자기 각성: 관람자가 ‘내면을 탐험하는 주체’가 되도록 경험 유도.

복도



선택의 문



입구: 현실의 틈 / 매트릭스 복도 콘크리트 박스 외관, 매트 블랙 or 반사 금속 마감 입구는 빛의 틈으로만 존재(표식 없음) 좁고 긴 복도 '코드'가 흐르는 듯한 빛(LED라인)

사운드: 저음 베이스, 기계적 웅웅거림'

메인 구조물: 두 개의 문, 마주 보는 위치에 배치문 위에 각각 빨간 조명 / 파란 조명, 약 캡슐 모양의 디자인문을 여는 순간, 공간이 갈라지며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전개됨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선택하게끔 유도
(※ 이 지점에서 실제 '선택'의 무게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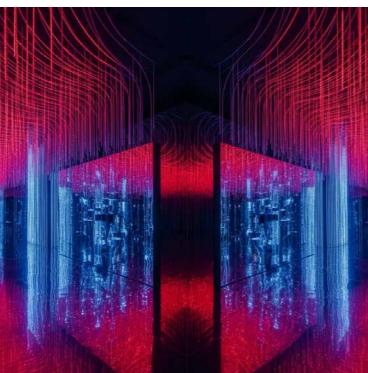
빨간 약 방: 현실 각성

현실을 직면하는 공간기괴하고 노출된 구조, 마르지엘라 팝업 참고사람 얼굴을 해체한 조형물, 깨어짐,

왜곡음향: 불협화음, 응장한 긴장감

조명: 낮은 빨간 빛, 스포트라이트로 조형 강조

경계의 방



빨강과 파랑이 서서히 보라색으로 합쳐지는 공간
바닥은 거울, 천장은 흘러내리는 빛 코드공간 중심엔 미러
박스 소리와 빛이 교차하면서 관람객을 혼란과 초월 사이에
위치시킴

빨간 약 방 vs 파란 약 방



파란 약 방: 망각의 안락함

편안하지만 몽환적인 환상 공간 제니×젠틀몬스터 콜라보 무드 요술봉, 거울, 푹신한 벽, 푸른 안개 등 연출
음향: 맑은 물소리 + 중성적 속삭임 조명: 부드러운 파랑+하늘색 계열의 무빙 라이트

OUT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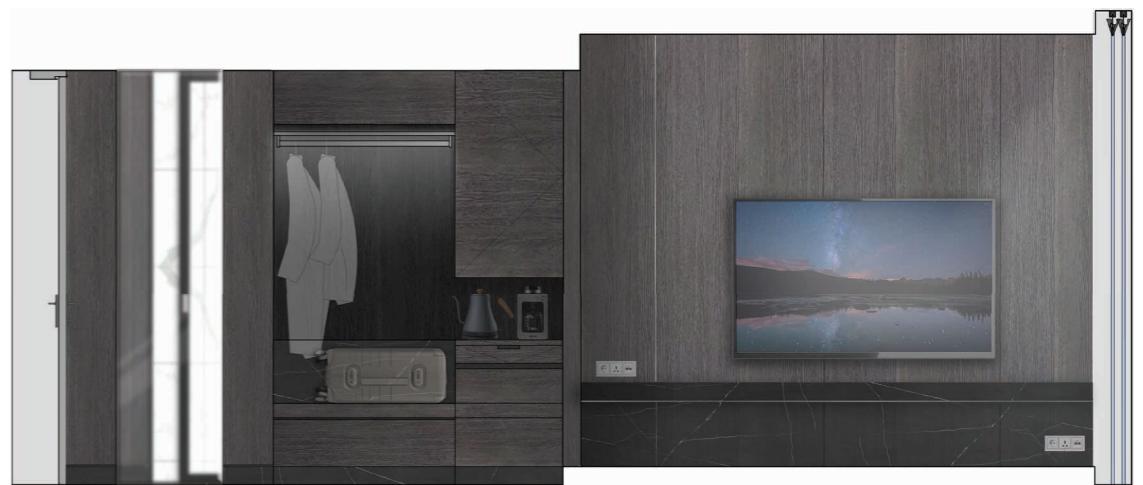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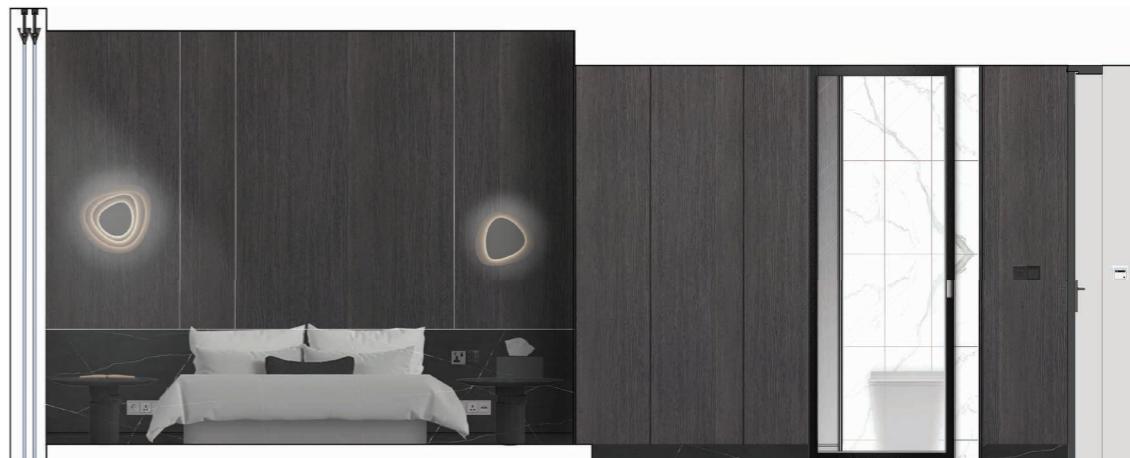
완전히 화이트 + 그레이 톤, 미니멀하고 적막
바닥엔 발자국, 벽엔 남겨진 소품 (약 캡슐, 안경 등)
이탈했지만 도달한 곳도 현실 같지 않음
음향 없음 (무음), 혼란 후의 차가운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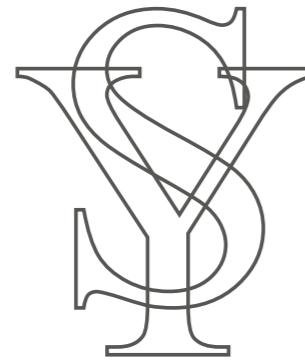


TITLE: COLORING HOTEL DRAWINGS

YEAR: 2024

무채색 톤앤매너 위에 다채로운 질감을 더한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입니다. 블랙 우드와 화이트 마블의 대비로 도시적인 세련미를 강조하고, 헤링본 바닥과 체크 타일 디테일로 시각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 차가운 공간에 온기를 더해, 절제된 미니멀리즘 속 프라이빗하고 안락한 호텔 무드를 완성합니다





You so yeon

TITLE: LOGO / NAME CARD

YEAR: 2025

Essence × Identity · Touch × Perception · People × Place

이 명함은 디자이너의 정체성과 철학을 최소한의 요소로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 앞면에는 이니셜 'S'와 'Y'를 결합한 로고를 배치하고, 형압 기법을 적용해 절제된 시각 표현 속에서도 촉각적인 인상을 더했다. 뒷면에는 연락처, 인스타그램 아이디, 포트폴리오 QR 코드를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하단에 삽입된 문장 "The Essence-Focused Designer: Bridging People and Place."는 본질에 집중하며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디자이너의 작업 방향을 드러낸다.





TITLE: JAPANESE ICONS

YEAR: 2022

Japanese Culture × Iconography · Symbol × Illustration Tradition × Pop · Graphic × Object

이 작업은 일본 문화 속 계절적 이미지와 상징 요소를 스티커라는 일상적인 그래픽 매체로 풀어낸 작업이다. 일본 특유의 풍경, 음식, 캐릭터 모티프를 원형 포맷의 일러스트로 단순화하여 시각적으로 정제된 이미지를 구성했다. 스티커는 노트나 문구류 등 일상 속 오브제에 사용되며, 문화적 요소를 가볍고 친숙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전통과 문화가 특정장소나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기억되는 방식을 제안한다.

